

노사발전재단, 일본 현장서 실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 해법 찾는다.

—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 공동세미나, MOU 체결 등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해법을 모색한다.

이번 방문은 2003년부터 24년간 이어져 온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양국의 실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은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생산성 제고 ▲노동시간 제도 개편이라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규제 차원을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의 전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시행 이후 시간 외 근로 상한 규제, 연 5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제도의 현장 정착과 함께 업종 간 노동시간 격차, 중소기업의 제도 적용 부담 등 현장 이슈에 대응하며 제도의 실질적 안착과 정책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재단은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방향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올해 1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위라벨 +4.5 프로젝트 ▲상생 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등 재단 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각 기업의 여건에 맞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노사 합의에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재단은 이번 방문의 첫 일정으로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 한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을 주제로 양국의 노동시간 정책 변화와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도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 ▲일본정보산업노동조합연합회(ICTJ)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제도 적용 사례와 노사 협력 기반의 생산성 개선 노력 등을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 개발 등 재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재단과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는 업무협약(MOU)을 연장하여 한일 고용노동분야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시간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재단은 노사와 함께 현장의 해법을 설계하고 이행까지 도와주는 실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2026년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 일본 도쿄 방문 계획(안)

담당 부서	국제노동본부 국제협력팀	책임자	팀 장	류혜영 (02-6021-1073)
		담당자	전문위원	배지홍 (02-6021-1079)



□ 배경 및 목적

- 한-일 양국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 고용·노동분야 발전 모색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은 '03년부터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 정기 교류 사업 수행

*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 노동분야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1989년 5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의해 설립된 비정부, 비영리(NPO) 기관으로 초청사업, 현지 지원사업(노동자 교육 활동, 사회개발활동), 인재육성, 조사연구 및 홍보 등 수행

- 올해는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과 우리나라의 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시장의 과제를 배경으로 양국의 근로시간 정책 변화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 양국 간 정책·제도 대응 방안을 모색

※ ('23년) 외국인근로자 정책, ('24년) 기업과 인권, ('25년) 초고령사회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 출장 개요

- (출장지) 일본 도쿄
- (출장자) 박종필 사무총장, 류혜영 팀장, 배지홍 전문위원(3명)
- (출장일정) 2026.4.21.(화)~2026.4.24.(금), 3박 4일

일정	주요 일정	비고
4.21.(화)	· (15:45) 김포공항 출국 - (17:50) 하네다공항 도착	OZ1045
4.22.(수)	· (10:00~12:00) JILAF 방문 및 MOU 체결식	장소: JILAF
	· (14:40~17:00) 한-일 공동세미나	장소: 렌고종합연구소
4.23.(목)	· (10:00~12:00) 도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	
	· (13:30~15:00) 일본 정보산업노동조합연합회(ICTJ)	
4.24.(금)	· (12:05) 하네다공항 출국 - (14:25) 김포공항 도착	OZ1075

□ 목적

- 저출생·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양국 공통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근로시간 정책 경험과 사례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 개요

- (일시) 2026.4.22.(수), 14:40~17:00
- (장소) 렌고종합연구소(RENGO Research Institute)
- (주제) 일하는 방식 개혁
- (참석자) 총 6명
 - (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류혜영 국제협력팀장, 배지홍 전문위원
 - (JILAF) 야쓰노부 아이하라 이사장, 토시히로 모토바야시 전무이사, 미카 키쿠치 프로젝트 매니저
- 세부 프로그램(안)

일 자	시 간	주요일정	비 고
4.22(수)	14:40~15:10	렌고종합연구소 방문 및 양 기관 인사	
	15:10~16:00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의 현황과 제도적 노력 - 발표자: 렌고종합연구소 담당자	발표시간 통역포함
	16:00~16:30	질의응답	
	16:30~17:00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기반 근로시간 혁신: 한국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노력 - 발표자: 류혜영 국제협력팀장	발표시간 통역포함

* 한-일 순차통역 진행

□ 기대효과

- 일하는 방식 전환에 따른 양국의 정책·제도 경험을 공유하고 비교하여 현장 적용 시사점과 정책 발전 방향 도출에 기여

□ 방문목적

- ‘일하는 방식 개혁’ 과 관련된 센터의 서비스 수행 · 지원 활동과 노력을 확인
- 양 기관의 지원사업 운영방식 교류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 방안 모색

□ 방문개요

- (방문 일시) 2026.4.23.(목), 10:00~12:00
- (방문 장소) 도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
- (방문자)
 - (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류혜영 국제협력팀장, 배지홍 전문위원
 - (JIALF) 모토바야시 전무이사, 키쿠치 프로젝트 매니저 등
- (면담자) 카가와 유미코 센터장, 관련 담당 실무자 등

□ 논의내용

-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주요 지원사업 및 운영 현황
- 노무관리 및 법제 관련 상담, 기업 대상 컨설팅 등 서비스 지원 방식
- 보조금 연계, 교육 · 세미나 등 정책 확산을 위한 지원 방식
-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 및 대응 사례
-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및 현장 대응 경험

□ 기대효과

-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지원사업 현장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 제고
- 센터의 지원사업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책 확산 및 제도 현장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방문목적

- 프로젝트 기반 업무와 디지털 기반 상시 업무 환경으로 장시간 노동과 유연근무 확산이 병존하는 정보통신산업 노동 현장 확인
- 해당 산업 대표 노조인 ICTJ를 방문해 일하는 방식 개혁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활동과 노동 현장의 의견 청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26.4.23.(목), 13:30~15:00
- (방문장소) 일본 정보산업노동조합연합회(ICTJ)
- (방문자)
 - (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류혜영 국제협력팀장, 배지홍 전문위원
 - (JIALF) 모토바야시 전문이사, 키쿠치 프로젝트 매니저 등
- (면담자) 하루카와 서기장, 시라야마 총무국장, 나가후치 노동정책국장

□ 논의내용

-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노조의 주요 활동
-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 및 제도화 과정
-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노조 대응 및 제도화 과정
-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 문제 대응 및 근로시간 관리 노력
- 산업별 단체교섭 및 가이드라인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및 제도 개선 과정

□ 기대효과

- 일하는 방식 개혁의 제도 형성과 사회적 합의 구조에 대한 이해 제고
- ICTJ의 노사협력 과정 확인 및 노조 의견 청취를 통해 한국의 정책·제도 및 근로시간 관리 등 일하는 방식 전환 방향 시사점 도출